

# 해남군 “차가 없어도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할 수 있어요”

###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수집 서비스 운영 호응 고령농가·영세농·여성농 등 방문해 수집·배달해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순회수집 서비스가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중 차량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농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집차가 순회하며 농산물을 수거하는 순회수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순회수집 서비스는 고령의 농가이거나 영세농, 여성농 등 읍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농가를 주로 방문해 생산품을 수집해 직매장까지 배달한다. 현재는 매일 10여 농가의 농산물을 수집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당일 수확한 싱싱한 농산물을 비롯해 말린 나물 등을 소포장해 집 앞마당

에 내어놓으면 사전 예약한 로컬푸드의 수집차가 차례대로 수거해 직매장에 진열해 준다.

특히 마을 단위로 어르신들이 공동작업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어 순회수집차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삼산면 매정마을의 이모씨는 “평소 차가 없어 아들이나 며느리의 도움으로 직매장을 가거나 버스나 택시로 납품하면서 포기할까 생각도 들었는데, 작년부터 순회 수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층 일이 편리해졌다”며 “작은 규모이지만 로컬푸드 매장 출하 농가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농사짓는 재미가 난다”고 전했다.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남읍 구교리

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21년 개장이래 2년만에 매출 50억원을 돌파하는 등 로컬푸드 정책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530여 농가에서 연간 기획 생산을 통해 농산물을 비롯한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 공예품 등 668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특히 출하농가는 대부분 관내 소농가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향상과 소비자 안전 먹거리 공급을 통한 지역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매일 오전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으며,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농가소득으로 직접 지급하면서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연중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중하우스 보급과 생산자 조직화, 출하품목 확대 등 푸드플랜 생산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소농위주의 다품목 출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회수집을 통해 거리, 비용, 교통수단 등의 이유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지 못하던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중소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의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미국 시장에 농수산물식품 5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체결



진도군이 미국 시간으로 16일(한국 시간 17일), 미국 현지에서 한남체인(대표 하기환), 키트레이딩(대표 유정)과 진도 농수산물 5백만 달러(한화 약 65억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남규 농수산유통사업단장으로 구성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산 쌀, 미역, 김, 꽃게, 울금 가공식품 등을 미국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진도군의 이번 협약은 미국 수출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진도군은 이번 협약과 더불어 로스앤젤레스(LA) 한남체인, 샌프란시스코 메가마트 등 3개 매장에서 진도군 농수산물의 홍보와 판촉을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현지지를 방문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 관계자는 “이번 관측행사와 협약을 계기로 진도 농수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세계적인 한국음식(K-food) 유행에 발맞춰 진도군 농수산물이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7월 호주에 1백만 달러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 장흥군, 원가심사 확대 통해 15억 원 예산 절감

장흥군은 계약심사 확대를 통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 심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 기준’ 개정에 맞춰 전남도에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보조사업 등의 계약심사 권한이 장흥군으로 이양되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분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 174건에 대해 원가 검사 등을 심사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 절감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을 살펴보면 2021년 5억원 2022년 9억 원, 2023년 15억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품질 향상 및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차단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회기반시설 및 군민소득 증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홍보활동 총력

### 강진군 “환자 발생 급등에 따른 각별한 주의 당부”

강진군은 최근 전남 도내에서 쯤쯤가무시 환자가 5배, 털진드기 밀도가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예방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라남도도에 따르면, 2023년 41주차(10.9~10.15)에 145명 발생하였던 쯤쯤가무시증 환자가 44주차(10.30~11.5)에는 748명으로 5배 증가했으며, 쯤쯤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의 밀도는 0.58에서 1.83으로 증가했다.

우리 군에서도 41주차에 쯤쯤가무시 환자가 1명 발생한 것에 반해 44주차엔 10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발생자가 급등하는 추세이다.

진드기 등 매개 감염병은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등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며, 발열, 구토, 복통,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며 SFTS의 경우 치명률이 2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쯤쯤가무시증·SFTS는 예방접종이 없으며 SFTS의 경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 물림을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이다.

특히 수확 등 야외작업으로 풀숲, 작물 등에 접촉이 빈번한 10월~12월 초 사이 많이 발생해,

진드기 물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드기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작업 및 나들이 시 장갑, 장화, 모자, 목수건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뿌린 후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비누 샤워를 하면서 진드기에 물린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진드기 발견 시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제거 및 소독을 해야 한다.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2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등산로(고성사, 총흔담 인근, 주작산 휴양림) 3곳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했고, 3월 중에는 전 세대에 진드기 기피제 18,940개를 배부한 바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